

## 우리나라 근로자 자살위험도 평가

### 연구기간

2021년 3월 ~ 2021년 12월

### 핵심단어

근로자, 자살, 위험요인

### 연구배경

- 자살은 10-30대에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였고, 40-50대에서는 2위를 기록하였으며 다른 사망원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자인 경우가 많은 젊은 층에서 자살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분포하고 있다.<sup>1)</sup>
- 2020년 중장기 역학조사 과제인 ‘근로자 사망통계연보개발 시범사업’에 따르면, 근로자의 사망외인 분포 중 자살이 약 55.1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- 근로자가 자살에 대해 높은 사망위험을 갖는 원인은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따른 업무과중 및 직장 내 인간관계의 문제, 감정노동, 고용 불안정 등의 직업환경적 요인이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자살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.
- 현재까지 데이터 기반의 자살연구는 일반집단 및 청소년 대상에 비해 근로자 집단 대상은 제시된 바가 드물다. 이는 자료원의 한계 등으로 다양한 노출요인들을 분석하는 데에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.
- 따라서 국가 단위의 대용량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자살 위험도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.

### 주요연구내용

#### 연구결과

-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
  - 농림, 어업직, 군인 집단에서 우울증 및 자살위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고 일반 근로자 대비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.
  - 보호서비스직의 자살 위험이 높게 나왔으며 직장에서의 외부적인 상태,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하여 사무직 종사자에서 자살률이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.

1) 2019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

---

○ 산재관련 자료 검토

- 산재신청자료 검토 결과, 2019년에 비해 2020년에서 자살로 인한 산재 승인율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었고, 승인건에 대한 업종 및 직종정보에서는 도소매 및 소비재용품수리업, 금융업, 관리자, 단순 종사원 등의 빈도가 높게 산출되었다.
- 업무상질병판정서 상의 승인내역을 살펴보았을 때, 남자, 주간근무, 상용직/정규직,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며 업종 및 직종형태에서는 서비스업, 금융업, 제조업, 관리자, 사무원, 간호사, 생산직 등의 비중이 높았다. 업무상 스트레스요인으로서는 주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직장 내 갈등, 업무과부하, 자살 직전의 급성 충격적인 사건 등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정신질환을 악화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. 사인으로서는 주로 목땀, 추락사, 가스중독, 약물중독, 음독이 있었다.

○ 시범분석 수행

- 매칭(Matching) 전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, 나이 및 성별을 보정했을 때 자살근로자 집단이 정신질환 과거력이 있는 경우, 제조업/운수 및 창고업/정보통신업/금융보험업/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/전문가 및 관련종사자/사무종사자/서비스종사자 및 판매종사자/장치,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/단순노무 종사자인 경우, 이혼한 경우,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가 유의한 결과로 산출되었다. 나이, 성별, 교육수준을 보정한 경우에는 야간작업 비노출 특수건강진단근로자인 경우가 추가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제시되었다.
- 1:4 매칭(Matching)후에는 정신질환 과거력과 직종정보, 이혼한 경우가 매칭 전의 결과와 동일한 유의성을 보였고, 그 밖에 보험료분위 하위 25%, 야간작업 비노출 특수건강진단 근로자, 업종에서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사망 당시 교육수준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이상의 경우가 추가적으로 유의한 인자로 파악되었다.

시사점

- 우리나라의 근로자 자살에 대한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하며 근로자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시급하다. 2007년 산재 신청 건수가 9건이었던 것 대비 2019년에 60건, 2020년에 75건으로 증가한 것을 미루어봤을 때, 근로자의 자살은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환경적 측면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.
-

## 연구활용방안

### 제언

- 우리나라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되어있는 고용보험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공단, 통계청 등 여러 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를 함께 연계하여 근로자의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다방면으로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.
- 향후 근로자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포괄적으로 어떠한 인구학적, 직업환경적 요소를 가진 집단이 자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.

## 연락처

연구책임자 |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중부권역학조사팀 윤민주

연락처 | 032-510-0756

e-mail | mjmj@kosha.or.kr